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5호)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2009년 12월

Fund Facts

투자목적 :

복합투자전략으로 투자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예금금리 + α의 수익률을 추구

투자대상 :

주식: 자산의 30%이하

채권: 자산의 40%이상

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이 자산의 15%이내

운용개시일 : 2003.12.02

펀드규모 : 50억원(순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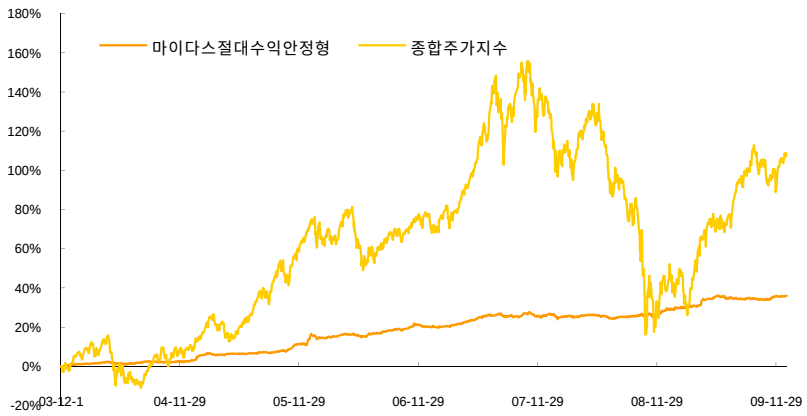
총보수 : 0.5%선취+순자산평잔의 연 1.07%

환매수수료 : 없음

펀드운용실적

구분	최근1월	최근3월	최근6월	1년	운용개시후
기간 수익률	-0.02%	1.34%	1.05%	4.94%	36.03%
연환산 수익률	-0.30%	5.32%	2.10%	4.94%	5.92%

수익률 추이



편입비현황

구분		평가금액 (백만원)	비율
주식	현물주식	1,446	29.14%
	선물매도	- 1,445	-29.11%
	순매수포지션	1	0.02%
채권/유동성		3,517	70.86%
순자산총액		4,963	100%

운용전략별 수익발생현황

전략	12월중		운용개시 이후	
	월간	연환산	누적	연환산
포트폴리오헤지전략	-0.14%	-1.60%	18.11%	2.98%
선물시스템트레이딩	0.00%	0.00%	-4.04%	-0.66%
옵션합성전략	0.01%	0.14%	0.20%	0.03%
Event Arbitrage 등	0.25%	2.90%	11.94%	1.96%
채권/유동성	-0.07%	-0.85%	17.36%	2.85%
비용	-0.08%	-0.87%	-7.54%	-1.24%
합계	-0.02%	-0.29%	36.03%	5.92%

※운용개시이후 전략별 누적수익률은 총누적수익률을 부문별 월간수익률 합계기준으로 안분한 수치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10-5호)

마이다스 절대수익안정형 증권 투자회사(채권혼합)

2009년 12월

펀드매니저 리포트

월간 운용경과

2009년 12월말 현재, 펀드는 누적수익률 36.03%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연환산하면 5.92%에 해당합니다. 월간 기준으로는 공모주 투자에서의 이익 실현에도 불구, 포트폴리오 헤지전략과 채권부분에서 손실을 기록하면서 펀드 전체적으로는 -0.02%의 월간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 포트폴리오헤지

포트폴리오헤지 전략은 현물주식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여, 시장의 방향과 상관없이 펀드 주식 포트폴리오의 시장대비 초과수익률 부분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전략입니다. 12월 주식시장은 두바이 쇼크에서 빠르게 벗어난 후 연말 랠리를 펼치며 연중 고점 부근(1,682.77pt)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제 2의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게 하였던 두바이 사태는 UAE 정부의 빠른 지원과, 대출 규모가 시장의 우려보다 적어 주식시장은 다시 급등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이머징 마켓 순매수와 생각보다 양호한 미국 거시경제 지표 지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12월 마지막 주부터 주식시장은 단기간의 급등영향으로 주가가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였는데 이는 1) 한달 동안 주가지수가 130pt 이상 급등한 점 2) 금호그룹의 워크아웃 사태로 인한 은행/건설주에 대한 심리 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UAE로부터 40조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함에 따라 기계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자동차 업종 역시 양호한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금융업종은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사태로 인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통신업종은 내년 이익감소에 대한 우려로 역시 하락세를 보인 한 달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 중 두산중공업,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물산, 현대차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으며, 태광, CJ오쇼핑, CJ제일제당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 하였습니다. 12월 중 포트폴리오 변경 종목으로는, 기업은행, 오리온, 다음, 현대백화점의 비중을 확대 하였으며, 반면 우리금융, LG전자, 우리투자증권 등의 비중을 축소 시켰습니다. 주식 Portfolio가 지수보다 낮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동 전략에서 손실이 발행하였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portfolio Hedge전략의 수익률은 -0.14%를 기록하였습니다.

2. 선물시스템트레이딩

선물시스템트레이딩은 당사 시스템의 매매신호에 따라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특성상 Day부문은 장중 변동성이 클수록 , Position부문은 일별변동성이 크면서 중기적인 추세(상승 또는 하락)가 뚜렷이 나타날 수록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둘은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12월중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매매가 없었으며, 손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옵션합성전략

옵션의 경우 행사가격 212, 215, 217의 콜옵션을 이용하여 지수가 많이 오르거나 하락하지 않으면 이익을 취할수 있으며, 손실규모가 제한하는 Butterfly 매도전략을 사용하였습니다. 옵션만기일에 주가지수가 이익을 실현할수 있는 범위내로 종료되어 0.01%의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4. Event Arbitrage 등

12월 중 공모주 투자 한국전력기술, 현대푸드시스템, 멜파스 등이 있었습니다.매매의 경우에는 한전기술, 멜파스, 현대푸드 등을 모두 공모가 대비 플러스 가격에서 매도하여 이익 실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달에는 비교적 많은 물량을 배정받은 한전기술과 멜파스에서 에서 큰 폭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펀드 전체 월간기준으로 Event Arbitrage 부문의 수익률은 0.25%입니다.

5. 채권: 채권은 주로 우량재권에 투자하는 전략을 유지하였으며, 12월 중 채권부분에서는 월간 수익률 -0.07%를 기록하였습니다.

운용계획

1. 포트폴리오헤지

1월 주식시장은 견조한 가운데 주가가 큰폭의 등락없이 횡보하는 장세가 전망됩니다. 올해 기업의 긍정적 이익전망으로 시장의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동안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금호 그룹 관련 리스크가 확실하게 해소 되기 전까지는 금융업종에 대한 심리악화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월 중에는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및 달러화 강세, 양호한 소비지표와 회복하고 있는 고용지표 그리고 이에 따른 출구전략 실행 가능성 등의 변수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1월 주식시장은 1,550~1,750pt 지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업종비중 조정과 관련해서는 12월에 큰 폭으로 오른 자동차 업종이 엔화약세, 미국점유율 하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약세를 실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소폭 반등에 성공한 조선업종 역시 악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발전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계업종과, 이에 수혜를 입을수 있는 건설업종의 비중을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2. 선물시스템트레이딩

향후 지수가 변곡점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면 선물시스템 트레이딩을 재개할 생각입니다.

.3. 옵션합성거래

1월 옵션합성거래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기근처에서 손실이 제한된 형태의 전략으로 이익을 추구할 계획이며, 만기근처에서 변동성이 다소 높아지는 것을 활용한 전략을 구상중입니다

4. Event Arbitrage 등

향후 투자대상 선정시, 공모가의 적정 벨류에이션 여부와 실적호조 및 향후 성장성 등을 감안하여 선별 투자할 계획입니다. 1월달에는 블루칩중심의 저평가 우량주 종목의 경우 공모주 투자에 적극참여하여 수익률 상승에 노력하겠습니다. 스타플렉스, 영흥철강, 아세아텍,한국지역난방공사, 락앤락,모비이스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